



출판인회의 중국 진출방안 세미나

“중국 출판 · 인쇄 시장 매력 많습니다”

(사)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혜경, www.kopus.org)는 구랍 12일 중국편역출판사의 하이엔 사장을 초청해 ‘제3회 해외유명출판인 초청세미나’를 열고, 한국 출판사의 중국시장의 진출방향과 구체적인 진출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세미나에는 새로운 출판 시장에 대해 관심을 증명하듯 출판인회의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출판인들이 자리했다. 강연은 ‘중국출판업 개황 및 한국출판사 진출계획’과 ‘한국출판업계의 중국출판시장 진출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중 ‘중국출판업 개황 및 한국출판사 진출계획’을 정리해 소개한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

개혁 개방 이후, 중국출판업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1970년대에 연간 출판되는 서적이 수만 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20여만종에 이르고 있다. 판매총액에 있어서도 10억위엔(약 1180억원)에서 현재 약 천억 위엔(약 11조 7600억원)에 달하고 있

다. 일인당 평균도서 구매는 당시 1달러(약 920원)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10달러(약 9200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중 대형 도시에서 일인당 도서 구매액은 이미 10달러(약 9200원)에 달하고 있다.

중국을 국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신농촌 건설과 도시

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도서 시장의 수요 또한 한층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 출판계에서 이런 점을 주목하고 중국 출판 산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산업만큼이나 출판산업에서도 큰 성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독일의 폭스바겐이 후반에 지속적으로 급속한 성과를 거두어 일본의 동종업자들을 크게 따돌린 것처럼 말이다. 올해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국 출판업계의 저작권 거래가 작년에 비해 배로 증가한 것은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중국 출판업계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중국 출판업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출판산업 구조

국영출판사

현재 전국에 걸쳐 600여 개가 있으며 모두 국가 소유

허이옌 대표는 중국 중앙민족대학 역사학과 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석사를 취득한 뒤 중앙민족대학 민족연구소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중앙민족대학출판사의 편집인과 발행인, 부사장을 거쳐 중국 사회출판사 부사장과 광명일보 출판사 부사장을 지냈다. 그는 중앙편역출판사 사장에 있는 동안 미국 Mc Graw-Hill,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대학 출판사, 독일 Springer 등 외국의 우수한 출판사들과 합작관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국서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서적들이 중국에 많이 소개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의 출판사이다. 출판사의 분포는 베이징 250여 개, 상하이 30여 개, 광둥 20여 개, 쓰촨 20여 개의 성, 시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80% 이상의 출판사가 모두 베이징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베이징을 사업기점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협력출판사, 총편집, 시장총감독, 테마선정 및 기획 총감독 등은 모두 베이징의 출판사가 고소득으로 인재를 초빙하는 부문에 해당한다. 중국 최대의 출판사는 연 출판액이 약 30억위엔(약 3500억원)에 달하며, 일억위엔(약 120억원) 이상의 출판액을 가진 출판사는 약 백여 개가 존재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략 3천만위엔(약 35억원)에서 5천만위엔(약 60억원) 정도를 출판하고 있다.

국영 출판사는 약 10여만 종에 달하는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약 400억 위엔(약 4조 7천억원)의 출판액을 기록하고 있다.

민영도서공사(문화공작실, 문화공사)

전국에 모두 5천여개가 있다. 70%가 베이징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 상하이, 광둥, 쓰촨, 후난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민영도서공사는 매년 5만 여 조의 도서를 출판하며 200만(약 2억4천만원)에서 300만 위엔(약 3억5천만원) 정도의 출판액을 기록하고 있다.

최대 민영도서공사는 즈홍 도서발행집단으로 연 출판액이 7~8억위엔(약 813억원 ~ 941억원)이다. 일억 위엔(약 118억원)이상을 출판하는 민영도서공사는 50개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며, 대부분은 1천만위엔(약 12억원) 정도이다.

원고 공급상

원고 공급상은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새로 생긴 사업 부문이다. 근 일년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 원고 공급상이 이미 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베이징에 거점을 두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 60여 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상하이, 광저우, 선

진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직원 백여명, 연 원고수 400여부, 약 4억의 자수(자수)출판액 천만여 위엔(약1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이 창작 작업이 아닌 편집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국출판계에서는 이를 가리켜 "원고를 조립한다"고 칭하기도 한다.

발행상

신화서점 가장 대표적인 루트, 전국에 근 만개, 서점은 근 백 개가 분포하고 있다. 연 판매액이 일억 위엔(약 118억원)이상인 곳은 10개가 안되며, 판매액이 가장 큰 곳은 베이징 시단의 투수따샤이고, 연 판매액은 5억위엔(약 588억원) 정도, 대략 3억(353억원) ~ 10억위엔(1200억원)에 달하고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출판상

과 판매상은 일반적으로 약 6~12개월 안에 결산을 한다.

민영서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루트이다. 민영서점은 일반서점, 도서관 서점, 도매 서점, 전화 주문서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국에 약 5만개가 있다. 그 밖에도 신문 가판대나 노상 서점 혹은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농촌 보급합작사 같은 대리점을 포함한다면 약 10만여 개가 된다.

출판상과 민영서점은 따로 결산일을 책정하지 않는다. (역자주: 도서대금을 바로 지불한다는 의미) 하지만 신뢰가 쌓이고 실력이 인정되며 자금공급이 안정적인 단골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3~6개월에 해당하는 결산기를 책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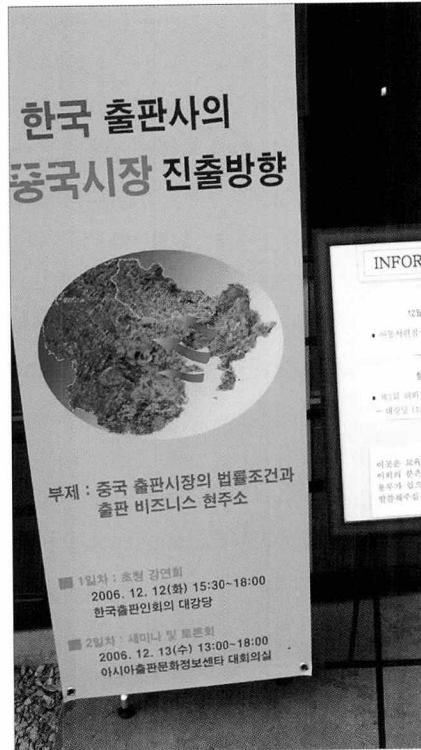
인쇄상

일반적으로 중국의 공장은 부분 별로 나눠서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인쇄, 장정, 조판, 디자인 등 각 생산 부문별로 분리되어 경영되고 있다. 큰 회사인 경우 다섯 공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다. 중국에는 인쇄공장, 장정공장이 약 10만여 개 있다. 베이징에 수천 개가 있으며 그 밖에 인쇄업이 발달한 지역으로는 선전, 상하이, 광둥, 저장, 장수 등이 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베이징이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베이징은 저가에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질을 놓고 본다면, 선전이 가장 우수하고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순이 될 것이다. 인쇄공장은 국영출판사에게는 일반적으로 3개월의 결산기를, 장정공장은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의 결산기를 준다. 대형공장일 경우 결산기가 비교적 짧다. 그러나 민영출판사에 대해서는 따로 결산기를 책정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 분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재료 공급상(종이, 인쇄잉크 등)

중국출판계에서는 일반도서에 대체로 경형지, 오프셋



페이퍼, 소량동판지를 사용한다. 생산지는 대체로 산둥, 허베이, 장수, 동베이 등이다. 책표지와 화책은 대체로 동판지를 사용하며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며 구미에서 수입되는 것은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지인 경우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판지의 품질이 요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하여 수입제품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잉크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품을 이용하며 고급 화책의 경우에는 외국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사용되는 재료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국산품은 외제품에 비해 20~30% 정도 가격이 싸다. 국산품의 품질

이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 경쟁력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생산 공장은 출판사에 경형지, 오프셋 페이퍼의 경우 3개월의 결산기를 주나, 동판지나 특수지의 경우 결산기를 주지 않는다. 잉크나 필름은 결산기가 전혀 없다. 민영출판사에게는 결산기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상

저작권 관련 업체가 전국에 약 20여 개가 있으며 국영과 민영 모두 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다.

국영의 경우에는 중화저작권대리총공사가 최상위에 위치한다. 설립된 지 18년이 되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발달된 지역에는 각각의 저작권 대리공사가 있다. 대부분 해당 지역 정부의 신문출판관리부문의 관리하에 있다.

민영저작권공사는 20세기 9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따핑귀, 보다 등의 회사가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요 몇 년 간 급속하게 성장한 회사로는 페이페이터가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몇몇 기관(예를 들자면 콩트학원 등)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보고 있으나, 업무 내용은 자국의 도서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시장 수용량

교재시장

초중학 매년 200억 위엔, 교재 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영출판사나 국영의 신화서점에 의한 독점 상황이 점차 종식되고 있으며 지홍도서, 아이신교육 등 10개의 민영도서공사가 대거 참여하여 국영도서공사와 상호대립하는 국면이다. 보조교재 시장도 약 150억 위엔에 달한다. 대학교재는 몇 개의 출판사가 독점하던 상황이 더 빠르게 종식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영어원교재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시대경제출판사는 영국 국가고시센터와 약 500여 종, 개별 품목당 약 3만 위엔(약 353만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고 매년 500권 정도의 서적을 발행하고 있으며 출판 1년 만에 대부분의 품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대학교재가 차지하는 수용량은 약 100억 위엔(약 1조 2천억원) 정도이다.

일반도서

시장 수용량은 약 300억 위엔(약 3조 6천억원) 정도이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근래 들어 한중간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다. 정부간은 물론이고, 민간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그 폭도 커지고 있다. 그 중에 문화부문이 크게 주목할만한데, 한류, 트랜디 드라마, 가족 드라마, 만화 등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는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이다. 교통의 발달도 있지만, 과거 이념적으로 대립할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하루에 다녀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가까운 나라이다. 중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도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인화력을 꼽고 싶다. 우리는 아시아인으로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문화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뜻이다.

중국진출의 접근방법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자가 가진 특색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자가 가진 특색에 맞춰서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사가 가진 다양한 매력들을 부각시키고,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여, 적당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위험을 많이 빚겨갈 수 있을 것이다.”

기타도서(업종별 전문서, 도매서, 학습용서적)

약 200억위엔(약 2조 4천억원). 현 중국 시장의 수용량은 매년 1천억위엔(약 12조원) 정도이다. 일인당 매년 70여 위엔, 약 9달러에 해당하여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한다면 차이가 큰 편이다. 십년 전 400억위엔(약 4조 7천억원)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니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삼농정책’, ‘신농촌건설’,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의 도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도서 시장 성장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 출판상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주의사항

중국진출의 적절한 시기

개인적으로 지금이 중국시장에 한국출판이 진출하기

맞춰서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사가 가진 다양한 매력들을 부각시키고,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여, 적당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위험을 많이 빚겨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방법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비교적 큰 업체의 경우에는 중국내에서 실력 있는 협력업체와 저작권 영역을 개척하거나, 몇 개의 내실 있는 출판사와 연합하여 발행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소형출판사의 경우에는 상대회사에 대리를 위탁하거나 소량의 쌍방 혹은 일방 저작권 교역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협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실패 위험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방법이 중국내 출판방식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